

# 초·중등 학생의 독서 플로우 성향과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n the Affecting Factors, Reading Disposition of Reading Flow of Elementary and Second Students

이 병 기(Byeong-Ki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설문지 구성 및 자료 분석 |
| II. 플로우의 개념과 독서 플로우의 요인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1. 플로우의 개념과 조건          | 1. 교차분석           |
| 2. 독서 플로우의 요인           | 2. 요인분석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V. 결론 및 제언        |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

### 초 록

플로우는 칙센트미하이(Chikszentmihalyi)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특정 활동이나 행동에 완전히 몰두할 때 느끼는 최적의 경험 상태를 말한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플로우 현상은 암벽 등반, 예술 활동, 댄스, 모터사이클, 생산적 업무 등 많은 행동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으나 독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플로우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학생들의 독서 플로우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고, 독서 플로우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독서자료, 독서목적, 독서방법 등 6개 영역의 36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40개 초·중등학교로부터 1,83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SPSS18을 사용하여 카이자승, 교차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플로우, 몰입, 독서 몰입, 독서 플로우, 독서 요인

### ABSTRACT

Csikszentmihalyi has given the term 'flow' to describe intense engagement or complete absorption in a task and behaviors. Activities as diverse as rock climbing, art, dance, motorcycling, and work has been reported as producing flow, but the most common optimal experience noted in the research is reading. This paper examines the disposition of reading flow of elementary and second students in Korea, and analyzed on the affecting factors in reading flow. Questionary for this study made of 36 items, including reading text, reading purpose, reading method etc. This study participated by 40 elementary & secondary schools, surveying 1,836 students. In order to verify the disposition and factors of reading flow used Chi-square, crosstabulation, factors by SPSS18.

Keywords: Flow, Reading Flow, Reading Factors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부교수(lisdoc@kongju.ac.kr)

• 접수일: 2010년 11월 9일 •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2일 • 최종심사일: 2010년 12월 24일

## I. 서론

우리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식사하는 것도 잊은 채 게임이나 놀이에 빠져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헝가리 출신의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는 플로우(flow)라 하였다. 1975년 플로우 이론을 창시한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에 대해 “어떤 활동을 하면서 깊이 몰두하여 외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행동 자체가 즐겁고,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지속되는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플로우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의식하지 않고 몰 흐르듯 자연스럽게 흐르는 몰아 지경의 느낌으로서, 흔히 말하는 몰입이나 불교 용어의 삼매경, 황홀경과 유사한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플로우를 일반적으로는 ‘몰입’이라 번역하고 있으나 한 동안 초·중등 교육계에서 불거진 영어 몰입 교육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고, 국내의 출판물 중에서 ‘독서몰입’이나 ‘몰입독서’라는 말이 표제에 들어가 있는 많은 저서들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플로우의 개념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플로우 현상은 운동, 게임, 놀이, 그리기, 쇼핑 등의 활동에서 체험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독서를 통해 플로우 현상을 경험한다고 한다. 청소년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플로우 경험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도 게임이 27.6%로 가장 높고, 게임, 음악, 친구 사교, 스포츠, 영화, 독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up>1)</sup> 독서는 독서의 목적이나 방법 독서자료의 형태나 내용 형식, 독서 감상문 작성이나 독서토론 등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읽거나 자유롭게 읽는 방식 등 매우 복합적인 지적 활동이다. 그럼에도 어떤 경우에 독서 플로우 현상이 발생하고, 어떤 요인과 요소에 의해서 독서 플로우가 야기되는지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칙센트미하이를 비롯하여 플로우 및 독서 플로우 현상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설문지를 개발하고, 이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의 독서 플로우 경험에 대한 성향이나 패턴을 파악하고, 독서 플로우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6개 영역, 36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고, 서울, 광역시, 시·군 지역을 안배하여 48개 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로부터 1-2학급의 학생들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한 총 1,836명의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SPSS18 한글 버전을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증, 교차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독서 플로우에 관한 탐색적 요인 분석 외에 독서 플로우에 의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모형으로 설정하고, LISREL이나 AMOS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각 모형의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1) 이창호, “청소년들의 수월성 획득을 위한 플로우(flow) 촉진 프로그램과 그 효과의 분석,” 상담학연구, 제6권, 제2호(2006), pp.469-484.

## II. 플로우의 개념과 독서 플로우의 요인

### 1. 플로우의 개념과 조건

플로우는 특정 행위나 활동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말한다. 플로우는 1975년 칙센트미하이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예술, 무용, 등산, 스포츠 등과 같이 어떤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 몰입의 경지에 빠지는 상태를 말한다.

칙센트미하이는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 활동에 왜, 어떻게 몰입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1965년에 이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몰입의 상태를 최적 경험(optimal experience)이라 하였다. 또한, 칙센트미하이는 최적 경험이라는 말과 더불어 내적 동기화 혹은 자기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스포츠, 놀이, 등반, 무용 등 자신의 행위에 완전히 빠져서 시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내적 동기화 혹은 자기목적적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 빠지는 이유를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를 즐기려는 내적 동기에 있음을 규명하는데 주력하였다. 자기목적적 경험은 자율, 자기를 뜻하는 'auto'와 목적, 목표를 뜻하는 'telos'의 합성어로 외적 보상이 아닌 내적 동기화에 의한 행동을 의미한다.

칙센트미하이는 초창기에 사용하던 자기목적적 경험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플로우(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몰입하는 상태)라는 용어로 바꾸고 1975년에 『지루함과 불안을 넘어서』<sup>2)</sup>라는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학계에 널리 파급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에 플로우에 관한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를 집대성하여 『플로우: 최적 경험의 심리학』<sup>3)</sup>을 발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칙센트미하이는 최적 경험 혹은 플로우의 개념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 보다는 플로우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혹은 플로우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975년에는 플로우에 대해서 완전히 몰두해 있는 최적의 심리상태, 자신을 망각할 정도의 최적 경험, 몰입한 상태에서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흥분 상태 등으로 규정하고, 플로우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조건으로서 도전과제(challenge)와 능력(skill)의 일치를 들고 있다. 여기서 도전 과제는 활동, 일, 문제, 행위 등의 난이도를 말하고, 능력은 도전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개인의 숙련도, 달성 가능 정도를 의미한다.

2)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몰입의 기술, 이삼출 옮김(서울 : 더블어 책, 2003), pp.21-22.

3) Csikszentmihalyi Mihaly,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New York : Hainaim Publishing Co., 1997).

〈표 1〉 플로우의 개념과 조건에 관한 연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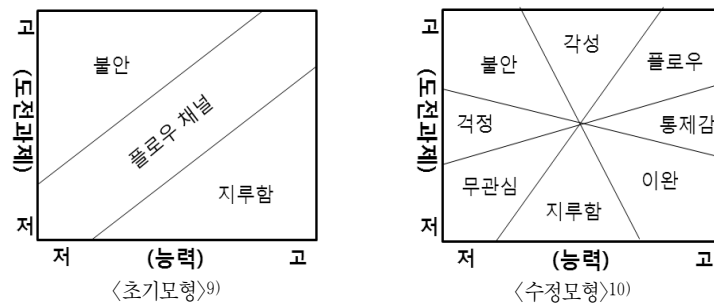
발표 년도	플로우의 상태	플로우의 조건(구성요소)
1975 <sup>4)</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최적의 심리상태</li> <li>• 행위에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일컫는 심리적 상태 혹은 최적의 경험</li> <li>• 개인이 완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흥분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전과제와 능력이 일치</li> <li>• 통제감(control)</li> <li>• 주의집중(attention)</li> <li>• 호기심(curiosity)</li> <li>• 내재적 흥미(intrinsic interest)</li> </ul>
1988 <sup>5)</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다른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지금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상태</li> <li>• 행위 자체가 매우 즐겁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지간한 고생도 감내하면서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를 수행에 대한 개인인의 내적 동기의 일부로서 도전과제와 능력의 상호작용</li> </ul>
1990 <sup>6)</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적 조건들에 의해 압도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으며, 내 운명은 내가 주인인 듯한 느낌이 드는 순간에 겪는 최적의 경험</li> <li>•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지금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상태</li> <li>• 경험 자체가 매우 즐겁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지간한 고생도 감내하면서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는 도전적 활동, 도전과제와 능력의 조화</li> <li>• 명확한 목적과 피드백</li> <li>• 주의집중</li> <li>• 자신이 주도하는 통제감</li> <li>• 시간 감각 상실</li> <li>• 자의식 상실</li> </ul>
1993 <sup>7)</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얻는 전체적인 경험으로 시간과 공간 개념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목적과 피드백</li> <li>• 도전과제와 능력의 균형</li> <li>• 행동과 각성의 통합</li> <li>• 주의집중</li> <li>• 통제감</li> <li>• 자의식 소멸</li> <li>• 시간왜곡</li> <li>• 자기목적적 경험</li> </ul>
1997 <sup>8)</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활동을 하면서 깊이 몰두하여 외부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행동 자체가 즐겁고 점차 주위에 신경 쓰지 않으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li> <li>• 그 활동에 자신이 일체화 되어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상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목적과 피드백</li> <li>• 도전과제와 능력의 균형</li> <li>• 행동과 각성의 통합</li> <li>• 주의집중</li> <li>• 통제감</li> <li>• 자의식 소멸</li> <li>• 시간왜곡</li> <li>• 자기목적적 경험</li> <li>•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li> </ul>

반면에 1988년도의 연구에서는 플로우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상태, 행위

4) Csikszentmihalyi Mihaly, *Beyond boredom and anxiety: The Experience of Play in Work and Games*(San Francisco : Jossey-Bass, 1975), p.36.  
 5) Csikszentmihalyi Mihaly,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260.  
 6) 미하이 칩센트미하이, *Flow: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나다*, 최인수 옮김(서울 : 한울림, 2004), p.i, 27, 29, 33.  
 7) Csikszentmihalyi Mihaly, *The Evolving Self: A Psychology for the Third Millennium*(New York : Harper Collins, 1993), pp.178-179.  
 8) Csikszentmihalyi Mihaly, *Finding Flow*(New York : Hainaim Publishing Co., 1997). : 신명희, “플로우 경험 측정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봉논집, 제34집(2004), p.176에서 재인용.

자체가 매우 즐겁기 때문에 고생을 감내하면서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상태'라 정의하고, 플로우의 조건을 도전과제와 능력의 일치라 아니라 '상호 작용'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 그 후에는 플로우의 개념을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의식하지 않고, 특정 활동에 자신이 일체화 되는 상태'라 정의하고, 플로우의 조건 혹은 구성요소를 9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플로우 초기 모형에서는 도전과제의 수준과 개인의 능력이 모두 낮거나 모두 높은 경우 등 수준이 일치하면 플로우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수정 모형에서는 도전과제의 수준과 자신의 능력이 모두 높은 영역에서 플로우를 경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그림 1〉 플로우 조건-도전과제와 능력의 상호작용

칙센트미하이이는 1993년 연구 이후로 플로우에 빠질 수 있는 조건으로서 '도전과제의 수준과 능력의 균형' 외에 명확한 목적과 피드백, 행동과 각성의 통합, 주의집중, 통제감, 자의식 소멸, 시간왜곡, 자기목적적 경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 등 8개의 플로우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명확한 목적과 피드백'은 개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분명히 알고 있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을수록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하며, '행동과 각성의 통합'은 자신과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통제감은 개개인이 수행하는 일과 행동을 본인 스스로가 조절, 제어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자의식 소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없어짐을 의미하며, '시간 왜곡'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일상적인 시간의 개념을 망각한 상태를 말하며, '자기목적적 경험'은 이익에 대한 기대 없이 활동 그 자체에 대한 즐거움으로부터 동기화된 경험을 의미한다.<sup>11)</sup>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플로우는 명확한 목적과 피드백, 도전과제와 능력의 균형, 행동과

9) Csikszentmihalyi Mihaly, *Beyond boredom and anxiety*, op. cit., p.74.

10) W. Compto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Belmont : Thomson Wadsworth, 2005), p.73.

11)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Flow: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나다*, op. cit., pp.113-138.

각성의 통합, 주의집중, 통제감, 자의식 소멸, 시간왜곡, 자기목적적 경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의 조건에서 행위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최적의 심리 상태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2. 독서 플로우의 요인

앞서 플로우의 조건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주위 환경의 인지나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 자의식이 적을수록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드백, 자기 조절이나 통제감, 파트너와의 관계 조절, 사교적 상황의 조절, 주위와의 조화가 많을수록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플로우 상태에 빠질 수 있는 행위,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칙센트미하이<sup>12)</sup>는 게임, 등반, 댄스, 예술, 음악, 스포츠, 영화 등 취미와 오락 활동에서 주로 플로우를 경험하지만 일이나 학습과 같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에서도 플로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통적이며 광범위하게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독서 활동을 들고 있다.

칙센트미하이와 마시미니(Massimini)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플로우의 경험 연구에 따르면 나바호 및 이탈리아 학생, 영국 웨일즈의 농부, 이탈리아 맹인, 약물 중독자 등 다양한 집단이나 문화권에 관계없이 독서활동을 통해 플로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또한, 일본의 폭주족을 대상으로 플로우 경험을 연구한 사토(Sato)는 위험하고, 불량한 행동을 통해서도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독서를 통해 플로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독서는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독서능력의 정도는 물론 독서자료의 형태와 유형, 난이도, 독서의 목적이나 물리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종합적인 지적 활동이다. 독서가 특정 집단이나 문화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행위라 한다면 독서 플로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제프 맥퀼란(Jeff Mcquillana) 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 플로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연령, 독서량, 독서자료의 언어, 독서의 목적(여가, 업무, 학습) 등 10개의 요소로 구분하여 독서 플로우의 경향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sup>14)</sup> 맥퀼란 등은 이 연구를 통해서 배경지식이 많을수록, 새로운 내용이 많을수록, 독서자료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이 많을수록, 비소

12) E. Massimini, Csikszentmihalyi M, and A. Delle Fave, *Flow and Biocultural Evolution*. In M. Csikszentmihalyi & I. S. Csikszentmihalyi 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60-68.

13) I. Sato, *Bosozoku: flow in Japanese motorcycle gangs*. In M. Csikszentmihalyi & I. S. Csikszentmihalyi 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92-117.

14) Jeff Mcquillana, Gisela Condeb, "The Conditions of Flow in Reading: Two Studies of Optimal Experience," *Reading Psychology*, Vol.17, No.2(Apr-Jun 1996), pp.109-135.

설보다는 소설이, 업무나 학습보다는 여가 독서의 경우에 독서 플로우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영은 독서동기와 독서 몰입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 문헌을 조사하여 독서 플로우에 미치는 요인을 독서빈도, 독서 시간, 독서량, 정의적 혜택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sup>15)</sup> 또한, 이순영은 다른 논문을 통해서 독서 몰입에 미치는 요인을 도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텍스트 요인, 독자내적 요인, 교사와 교실 환경 요인, 가족과 가정환경 요인 등 4개로 구분하고 세부 요인을 열거하고 있다.<sup>16)</sup> 이외에도 신명희는 인터넷 이용, 게임, 소비 행태 등 다양한 주제 분야의 플로우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플로우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통해 플로우 측정 변인을 숙련도와 도전감, 호기심과 내생적 흥미, 관여, 몰입 등 9가지를 제시하고 있다.<sup>17)</sup>

〈표 2〉 독서 및 플로우의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플로우의 주요 요인
Jeff Mcquillan(1996)	연령, 독서량, 독서자료의 언어, 독서의 목적(여가, 업무, 학습), 직업, 독서자료의 자율 선택 혹은 타인 부여 과제 여부, 소설과 비소설, 사실적 내용과 상상적 내용, 배경 지식 여부, 독서 방법 및 스타일 등
이순영(2006a)	독서빈도, 독서시간, 독서량, 독서능력과 성취, 정의적 혜택(내재적 동기, 학습자의 텍스트나 과제, 독자의 감각, 주체성과 타율성, 독자로서의 자기 인식 등)
이순영(2006b)	텍스트요인(선명한 이미지, 흥미로운 인물, 적절한 난이도, 다채로운 언어, 독자와의 관련성, 이야기 구조나 반전, 삶과 관련된 주요 주제, 구체적인 예시나 일화), 독자내적요인(자아효능감, 기대와 호기심, 독서 목적, 독서에 부가하는 가치, 독서 과제에의 집중력, 독자로서의 주체성), 교사와 교실 환경 요인(교사의 동기 관심 애정 신뢰, 적절히 도전적인 열린 과제, 학생에게 의미있고 흥미로운 과제, 독서활동에서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 사회적 협동과 상호 존중), 가족과 가정환경 요인(부모나 형제의 학력과 문식 수준, 가정의 문식 환경, 가족과의 문식 활동 내용, 가족의 독서빈도, 독서량, 학교 독서 활동에 대한 관심 지원)
신명희(2004)	숙련도와 도전감, 호기심과 내생적 흥미, 관여, 몰입, 시간왜곡, 통제감, 즐거움, 상호작용성, 텔레프레즌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독서 플로우에 대한 요소별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국의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은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인천, 부산, 대전 등의 광역시, 경기

15) 이순영, “독서 동기와 몰입독서의 영향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26집(2006. 8), pp.403-424.

16) 이순영, “독서 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독서연구, 제16호(2006), pp.360-372.

17) 신명희, “플로우 경험 측정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봉논집, 제34집(2004), pp.173-189.

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의 중·소도시(읍면 포함)로 구분하여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씩 총 48개 학교를 설문 대상으로 삼았다.

48개 학교의 사서교사에게 설문지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설문지를 1-2학년 분량의 숫자만큼 복사하여 설문을 실시하도록 의뢰하였고, 각 학급에 들어가서 독서 플로우에 대한 개념과 설문 방법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고,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우편을 통해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설문지의 회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회수 현황

구분		빈도	비율	합계
성별	남학생	894	48.7	1,836
	여학생	942	51.3	
지역	특별시	254	13.8	1,836
	광역시	626	34.1	
	중·소도시	956	52.1	
학교급별	초등학교	373	20.3	1,836
	중학교	765	41.7	
	고등학교	698	38.0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개 중 40개 학교, 총 1,836명의 학생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 48.7%, 여학생 51.3%, 지역별로는 특별시 13.8%, 광역시 34.1%, 중·소도시 52.1%이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0.3%, 중학교 41.7%, 고등학교 38.0%였다. 사서교사로 하여금 직접 학급에 들어가 교육을 시키고, 설문을 실시한 결과 오류나 문제가 있는 설문지는 발견하지 못하여 회수한 1,836명의 학생 설문지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2. 설문지 구성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표 4>와 같이 독서자료-외적 형식, 독서자료-내용형식, 독서목적 및 의도성, 자율성과 타율성, 독서방법, 독서빈도 및 환경 등 6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요인별 세부적인 설문 항목을 배치하여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표 2>에서 제시한 독서 및 플로우의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설문의 각 문항은 '소설-비소설, 고전-신간' 등 대립 혹은 대응하는 문구를 배치하고, 양쪽의 질문 중에서 독서하는 동안에 몰입이 잘 되는 쪽을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질문에 대한 몰입의 정도에 따라서 체크하도록 하였다.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거나 양쪽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립적 위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대립 혹은 대응하는 문구’로 구성된 설문을 통해 어느 쪽이 몰입이 잘 되는가 하는 성향을 먼저 분석하고, 중립적 위치를 포함한 7단계 척도를 활용하여 1-7까지 값으로 코딩한 후 연구자가 설정한 요인별로 묶이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SPSS18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독서 플로우 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

독서자료-외적 형식		독서자료-내용형식	
1. 도서-신문	2. 그림-글	7. 소설-비소설	8. 사실-상상
3. 두꺼운-얇은	4. 종이책-전자책	9. 설명-논설	10. 쉬운 책-어려운 책
5. 전체-부분	6. 단권-시리즈	11. 고전-신간	12. 새로운-아는
		13. 내 생각-다른 내용	
독서 목적 및 의도성		자율성과 타율성	
14. 무계획-계획		16. 추천-자신	17. 알려진-알려지지 않은
15. 여가-정보		18. 토론-무토론	19. 감상문-무감상문
		20. 수업교과서-수업비교과서	21. 학교공부-자유
독서방법		독서빈도 및 환경	
22. 처음 끝-골라서	23. 천천히-빠르게	33. 매일-가끔씩	
24. 읽어줄 때-스스로	25. 방법지도-비지도	34. 장시간-단시간	
26. 처음 보는 책-읽은 책	27. 읽는 중-읽고 나서	35. 집-학교	
28. 정자세-자유	29. 혼자서-많은 사람	36. 이동-고정	
30. 책만-음악을 들으며	31. 정해진 시간-자유		
32. 경쟁-비경쟁			

〈설문 방법〉

	완전 몰입	부분 몰입	약간 몰입	모르거나 양쪽 모두	약간 몰입	부분 몰입	완전 몰입	
소설을 읽을 때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설이 아닌 책을 읽을 때

1,836명으로부터 회수한 설문은 SPSS18 버전을 사용하였으며, 문항별로 전체 빈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비 모수-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고, 성별·지역별·학교 급별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내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 36개 항목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크론바 알파계수의 총점이 .801이며, 36개 문항의 알파계수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 문항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교차분석

#### 가. 독서자료-외적형식

도서와 신문(도서-신문), 그림이 많은 책과 글로만 되어 있는 책(그림-글), 두꺼운 책과 얇은 책(두꺼운-얇은), 종이책을 읽을 때와 전자책을 읽을 때(종이책-전자책), 전체를 다 보아야 하는 책과 부분적으로 골라 봐도 되는 책(전체-부분), 한권으로 된 책과 시리즈로 된 책(단권-시리즈) 등 독서자료의 외적 형식이 학생들의 독서 플로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독서자료-외적 형식에 의한 독서 플로우 차이 검증

문항	변수	전체(N) (통계량, df, 유의확률)		성별(N, %)		지역(N, %)			학교급(N, %)		
				남	여	특별	광역시	중소	초	중	고
1. 도서-신문	도서	921(50.1)	<u>419(46.8)</u>	<u>502(53.2)</u>	<u>115(45.2)</u>	<u>314(50.1)</u>	<u>492(51.4)</u>	<u>247(66.2)</u>	<u>371(48.4)</u>	<u>303(43.4)</u>	
	신문	623(33.9)	313(35.0)	310(32.9)	97(38.1)	214(34.1)	312(32.6)	71(19.0)	271(35.4)	281(40.2)	
	중립	292(15.9)	162(18.1)	130(13.8)	42(16.5)	98(15.6)	152(15.8)	55(14.7)	123(16.0)	114(16.3)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323.5(2) p = 0.000$	$\chi^2(df) = 9.70(2) p = 0.008$	$\chi^2(df) = 3.46(4) p = 0.484$	$\chi^2(df) = 59.4(4) p = 0.000$						
2. 그림-글	그림	951(51.7)	<u>472(52.7)</u>	<u>479(50.8)</u>	<u>135(53.1)</u>	<u>336(53.6)</u>	<u>480(50.2)</u>	<u>175(46.9)</u>	<u>390(50.9)</u>	<u>386(55.3)</u>	
	글	617(33.6)	272(30.4)	345(36.6)	77(30.3)	193(30.8)	347(36.2)	145(38.8)	266(34.7)	206(29.5)	
	중립	268(14.5)	150(16.7)	118(12.5)	42(16.5)	97(15.4)	129(13.4)	53(14.2)	109(14.2)	106(15.1)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381.1(2) p = 0.000$	$\chi^2(df) = 11.2(2) p = 0.004$	$\chi^2(df) = 7.09(4) p = 0.131$	$\chi^2(df) = 10.6(4) p = 0.03$						
3. 두꺼운-얇은	두꺼운	627(34.1)	290(32.4)	337(35.7)	75(29.5)	230(36.7)	322(33.6)	178(47.7)	268(35.0)	181(25.9)	
	얇은	790(43.0)	<u>399(44.6)</u>	<u>391(41.5)</u>	<u>109(42.9)</u>	<u>256(40.8)</u>	<u>425(44.4)</u>	<u>136(36.4)</u>	<u>324(42.3)</u>	<u>330(47.2)</u>	
	중립	419(22.8)	205(22.9)	214(22.7)	70(27.5)	140(22.3)	209(21.8)	59(15.8)	173(22.6)	187(26.7)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113.0(2) p = 0.000$	$\chi^2(df) = 2.5(2) p = 0.280$	$\chi^2(df) = 6.93(4) p = 0.139$	$\chi^2(df) = 53.6(4) p = 0.000$						
4. 종이책-전자책	종이책	995(54.1)	<u>476(53.2)</u>	<u>519(55.0)</u>	<u>138(54.3)</u>	<u>346(55.2)</u>	<u>511(53.4)</u>	<u>200(53.6)</u>	<u>375(49.0)</u>	<u>420(60.1)</u>	
	전자책	490(26.6)	218(24.3)	272(28.8)	60(23.6)	160(25.5)	270(28.2)	109(29.2)	248(32.4)	133(19.0)	
	중립	351(19.1)	200(22.3)	151(16.0)	56(22.0)	120(19.1)	175(18.3)	64(17.1)	142(18.5)	145(20.7)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375.3(2) p = 0.000$	$\chi^2(df) = 13.4(2) p = 0.001$	$\chi^2(df) = 3.76(4) p = 0.439$	$\chi^2(df) = 35.8(4) p = 0.000$						
5. 전체-부분	전체	858(46.7)	<u>403(45.0)</u>	<u>455(48.3)</u>	<u>114(44.8)</u>	<u>301(48.0)</u>	<u>443(46.3)</u>	<u>197(52.8)</u>	<u>343(44.8)</u>	<u>318(45.5)</u>	
	부분	703(38.2)	365(40.8)	338(35.8)	101(39.7)	228(36.4)	374(39.1)	123(32.9)	297(38.8)	283(40.5)	
	중립	275(14.9)	126(14.0)	149(15.8)	39(15.3)	97(15.4)	139(14.5)	53(14.2)	125(16.3)	97(13.8)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297.9(2) p = 0.000$	$\chi^2(df) = 4.8(2) p = 0.088$	$\chi^2(df) = 1.60(4) p = 0.807$	$\chi^2(df) = 9.12(4) p = 0.058$						
6. 단권-시리즈	단권	838(45.6)	<u>375(41.9)</u>	<u>463(49.1)</u>	<u>132(51.9)</u>	<u>271(43.2)</u>	<u>435(45.5)</u>	<u>142(38.0)</u>	<u>336(43.9)</u>	<u>360(51.5)</u>	
	시리즈	700(38.1)	370(41.3)	330(35.0)	78(30.7)	253(40.4)	369(38.5)	189(50.6)	313(40.9)	198(28.3)	
	중립	298(16.2)	149(16.6)	149(15.8)	44(17.3)	102(16.2)	152(15.8)	42(11.2)	116(15.1)	140(20.0)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257.2(2) p = 0.000$	$\chi^2(df) = 10.2(2) p = 0.006$	$\chi^2(df) = 7.82(4) p = 0.098$	$\chi^2(df) = 57.4(4) p = 0.000$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보다는 도서, 글로만 되어 있는 책보다는 그림이 많은 책, 두꺼운 책보다는 얇은 책, 전자책보다는 종이책, 부분적으로 보는 책보다는 전체를 보아야 하는 책, 시리즈보다는 단행본의 경우에 독서 플로우 현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지역별, 학교 급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유의확률(p)이 .000로 유의수준 0.05는 물론 0.001, 0.005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최근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자책이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독서 플로우의 관점에서 보면 종이책이 몰입이 잘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서교사의 독서교육이나 교과수업 시간에 1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짧은 형태의 글을 널리 활용하고 있으나 독서 플로우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를 통람하는 경우에 몰입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성향과 다르지 않으나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글보다 그림이 많은 책’에서 독서 플로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종이책과 단권의 경우에 몰입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05에서 유의미하였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급할수록 ‘도서보다는 신문’을 통해서도 플로우를 경험하고 있으며,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글’ 문항의 경우에 초·중·고 학생 모두 ‘그림이 많은 책’을 선호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급할수록 플로우 경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소 의외이며, 초등학생들은 ‘단권-시리즈’의 경우에도 단권보다는 시리즈의 경우에 독서 플로우를 많이 경험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단권을 통해서 플로우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생 수준의 시리즈는 대체로 내용이 짧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리즈의 경우에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소 인지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독서자료-내용형식

소설을 읽을 때와 소설이 아닌 책을 읽을 때(소설-비소설), 사실을 다룬 책과 상상을 다룬 책(사실-상상), 설명문 형식의 책과 주장이 담긴 책(설명-논설), 쉬운 내용의 책과 어려운 책(쉬운 책-어려운 책), 고전을 읽을 때와 신간을 읽을 때(고전-시간), 새로운 내용이 많을 때와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을 때(새로운-아는), 내 생각과 같은 내용을 다룬 책과 내 생각과 다른 내용을 다룬책(내 생각-다른 내용) 등 7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독서자료(내용형식)가 독서 플로우에 미치는 성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독서자료-(내용 형식)에 의한 독서 플로우 차이 검증

문항	변수	전체(N) (통계량, df, 유의확률)	성별(N, %)		지역(N, %)			학교급(N, %)		
			남	여	특별	광역시	중소	초	중	고
7. 소설-비소설	소설	1,195(65)	517(57.8)	678(71.9)	183(72.0)	406(64.8)	606(63.3)	180(48.2)	522(68.2)	493(70.6)
	비소설	373(20.3)	217(24.2)	156(16.5)	40(15.7)	128(20.4)	205(21.4)	136(36.4)	147(19.2)	90(12.8)
	중립	268(4.5)	160(17.8)	108(11.4)	31(12.2)	92(14.6)	145(15.2)	57(15.2)	96(12.5)	115(16.4)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842.0(2) p = 0.000$	$\chi^2(df) = 40.5(2) p = 0.000$	$\chi^2(df) = 6.74(4) p = 0.150$	$\chi^2(df) = 91.3(4) p = 0.000$					
8. 사실-상상	사실	480(26.1)	255(28.5)	225(23.8)	70(27.5)	175(27.9)	235(24.5)	107(28.6)	191(24.9)	182(26.0)
	상상	970(52.8)	450(50.3)	520(55.2)	127(50)	311(49.6)	532(55.6)	202(54.1)	444(58.0)	324(46.4)
	중립	386(21.0)	189(21.1)	197(20.9)	57(22.4)	140(22.3)	189(19.7)	64(17.1)	130(16.9)	192(27.5)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321.3(2) p = 0.000$	$\chi^2(df) = 5.8(2) p = 0.05$	$\chi^2(df) = 6.3(4) p = 0.174$	$\chi^2(df) = 33.3(4) p = 0.000$					
9. 설명-논설	설명	612(33.3)	343(38.3)	269(28.5)	81(31.8)	222(35.4)	309(32.3)	134(35.9)	252(32.9)	226(32.3)
	논설	500(27.2)	204(22.8)	296(31.4)	57(22.4)	169(26.9)	274(28.6)	106(28.4)	200(26.1)	194(27.7)
	중립	724(39.4)	347(38.8)	377(40.0)	116(45.6)	235(37.5)	373(39.0)	133(35.6)	313(40.9)	278(39.8)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40.993(2) p = 0.000$	$\chi^2(df) = 25.8(2) p = 0.000$	$\chi^2(df) = 7.29(4) p = 0.121$	$\chi^2(df) = 3.38(4) p = 0.495$					
10. 쉬운 책-어려운 책	쉬운 책	1011(55)	477(53.3)	534(56.6)	147(57.8)	343(54.7)	521(54.4)	176(47.1)	428(55.9)	407(58.3)
	어려운 책	491(26.7)	244(27.2)	247(26.2)	50(19.6)	174(27.7)	267(27.9)	127(34.0)	205(26.7)	159(22.7)
	중립	334(18.1)	173(19.3)	161(17.0)	57(22.4)	109(17.4)	168(17.5)	70(18.7)	132(17.2)	132(18.9)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410.3(2) p = 0.000$	$\chi^2(df) = 2.4(2) p = 0.300$	$\chi^2(df) = 8.8(4) p = 0.065$	$\chi^2(df) = 17.8(4) p = 0.001$					
11. 고전-신간	고전	329(17.9)	195(21.8)	134(14.2)	46(18.1)	116(18.5)	167(17.4)	78(20.9)	145(18.9)	106(15.1)
	신간	1,084(59)	473(52.9)	611(64.8)	138(54.3)	357(57.0)	589(61.6)	196(52.5)	446(58.3)	442(63.3)
	중립	423(23.0)	226(25.2)	197(20.9)	70(27.5)	153(24.4)	200(20.9)	99(26.5)	174(22.7)	150(21.4)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553.2(2) p = 0.000$	$\chi^2(df) = 29.6(2) p = 0.000$	$\chi^2(df) = 7.34(4) p = 0.119$	$\chi^2(df) = 12.8(4) p = 0.012$					
12. 새로운-아는	새로운	1,101(59.9)	558(62.4)	543(57.6)	143(56.2)	392(62.6)	566(59.2)	268(71.8)	445(58.1)	388(55.5)
	아는	454(24.7)	203(22.7)	251(26.6)	58(22.8)	132(21.0)	264(27.6)	67(17.9)	195(25.4)	192(27.5)
	중립	281(15.3)	133(14.8)	148(15.7)	53(20.8)	102(16.2)	126(13.1)	38(10.1)	125(16.3)	118(16.9)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610.5(2) p = 0.000$	$\chi^2(df) = 4.8(2) p = 0.08$	$\chi^2(df) = 16.6(4) p = 0.002$	$\chi^2(df) = 28.7(4) p = 0.000$					
13. 내 생각-다른 내용	내 생각	824(44.8)	421(47.0)	403(42.7)	113(44.4)	287(45.8)	424(44.3)	151(40.4)	359(46.9)	314(44.9)
	다른 내용	476(25.9)	214(23.9)	262(27.8)	53(20.8)	152(24.2)	271(28.3)	120(32.1)	195(25.4)	161(23.0)
	중립	536(29.1)	259(28.9)	277(29.4)	88(34.6)	187(29.8)	261(27.3)	102(27.3)	211(27.5)	223(31.9)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113.0(2) p = 0.000$	$\chi^2(df) = 4.5(2) p = 0.101$	$\chi^2(df) = 9.37(4) p = 0.052$	$\chi^2(df) = 13.1(4) p = 0.01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설, 상상, 설명, 쉬운 책, 신간, 새로운 내용의 책, 내 생각과 같은 책의 경우에 독서 플로우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확률(p)이 .000로 유의수준 0.05는 물론 0.001, 0.005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만, '설명-논설'의 경우에는 중립적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설명문이나 논설문에 관계없이 독서 플로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초·중등 학생들이 설명문과 논설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든다.

‘소설-비소설’의 경우에 여학생과 고등학생이 소설에 몰입하는 성향이 높으며,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상’의 경우에 여학생과 초등학생이 상상을 다룬 책에 몰두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쉬운 책-어려운 책’의 경우에 남녀 혹은 지역별로는 유의미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쉬운 책을 통해 플로우를 경험하며, 유의수준 0.001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여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신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초등학생들은 다소 어려우면서도 새로운 내용을 통해 독서 플로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차이가 있으며, 초등학생들에게도 칙센트미하이 가 말한 플로우의 조건으로서 ‘능력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활동’의 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독서 목적 및 의도성

계획없이 닥치는 대로 읽을 때와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읽을 때(무계획-계획),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해서 읽을 때와 새로운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읽을 때(여가-정보)로 구분하여 독서 목적 및 의도가 플로우에 미치는 경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독서목적 및 의도성에 의한 독서 플로우 차이 검증

문항	변수	전체(N) (통계량, df, 유의확률)		성별(N, %)		지역(N, %)			학교급(N, %)		
				남	여	특별	광역	중소	초	중	고
14. 무계획-계획	무계획	739(40.2)	346(38.7)	393(41.7)	112(44.0)	256(40.8)	371(38.8)	99(26.5)	309(40.3)	331(47.4)	
	계획	632(34.4)	315(35.2)	317(33.6)	66(25.9)	207(33.0)	359(37.5)	193(51.7)	263(34.3)	176(25.2)	
	중립	465(25.3)	233(26.0)	232(24.6)	76(29.9)	163(26.2)	226(23.6)	81(21.7)	193(25.2)	191(27.3)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61.9(2)$ p=0.000	$\chi^2(df)=1.8(2)$ p=0.402	$\chi^2(df)=13.0(4)$ p=0.011	$\chi^2(df)=78.7(4)$ p=0.000						
15. 여가-정보	여가	1161(63.2)	545(60.9)	616(65.3)	168(66.1)	393(62.7)	600(62.7)	216(57.9)	492(64.3)	453(64.8)	
	정보	383(20.8)	185(20.6)	198(21.0)	43(16.9)	119(19.0)	221(23.1)	93(24.9)	154(20.1)	136(19.4)	
	중립	292(15.9)	165(18.4)	127(13.4)	43(16.9)	115(18.3)	134(14.0)	64(17.1)	119(15.5)	109(15.6)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745.4(2)$ p=0.000	$\chi^2(df)=8.7(2)$ p=0.01	$\chi^2(df)=10.3(4)$ p=0.035	$\chi^2(df)=6.37(4)$ p=0.173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계획적으로 책을 읽을 때, 여가를 위해서 책을 읽을 때 독서 플로우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확률(p)이 .000로 유의수준 0.05는 물론 0.001, 0.005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무계획적이고, 여가를 위해서 책을 읽을 때 독서 플로우를 많이 경험하는 성향은 성별, 지역별로 차이가 없이 공통적인 현상이었으나 학교 급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 계획적으로 책을 읽을 때 독서 플로우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유의수준 0.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라. 자율성과 타율성

독서 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타율성을 다른 사람이 추천한 책과 자신이 고른 책을 읽을 때(추천-자신), 많이 알려진 책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책을 읽을 때(알려진-알려지지 않은), 독서 토론이나 발표를 위해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토론-무토론), 숙제·독서신문·독서 감상문 등을 위해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감상문-무감상문), 수업 중에 교과서를 읽을 때와 수업 중에 교과서 이외의 관련 자료를 읽을 때(수업교과서-수업 비교과서), 학과 공부와 관련된 책을 읽을 때와 자유롭게 읽을 때(학과공부-자유) 등 6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독서 플로우의 성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자율성과 타율성에 의한 독서 플로우 차이 검증

문항	변수	전체(N) (통계량, df, 유의확률)		성별(N, %)		지역(N, %)			학교급(N, %)		
				남	여	특별	광역	중소	초	중	고
16. 추천-자신	추천	484(26.3)	251(28.0)	233(24.7)	75(29.5)	177(28.2)	232(24.2)	80(21.4)	211(27.5)	193(27.6)	
	자신	986(53.7)	471(52.6)	515(54.6)	115(45.2)	329(52.5)	542(56.6)	236(63.2)	413(53.9)	337(48.2)	
	중립	366(19.9)	172(19.2)	194(20.5)	64(25.1)	120(19.1)	182(19.0)	57(15.2)	141(18.4)	168(24.0)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1082.6(2) p = 0.000$	$\chi^2(df) = 3.8(2) p = 0.280$	$\chi^2(df) = 13.6(4) p = 0.034$	$\chi^2(df) = 26.6(4) p = 0.000$						
17. 알려진-알려지지 않은	알려진	992(54.0)	489(54.6)	503(53.3)	143(56.2)	352(56.2)	497(51.9)	203(54.4)	413(53.9)	376(53.8)	
	알려지지 않은	374(20.3)	166(18.5)	208(22.0)	35(13.7)	118(18.8)	221(23.1)	91(24.3)	162(21.1)	121(17.3)	
	중립	470(25.5)	239(26.7)	231(24.5)	76(29.9)	156(24.9)	238(24.8)	79(21.1)	190(24.8)	201(28.7)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361.4(2) p = 0.000$	$\chi^2(df) = 3.79(2) p = 0.150$	$\chi^2(df) = 13.3(4) p = 0.010$	$\chi^2(df) = 12.1(4) p = 0.016$						
18. 토론-무토론	토론	396(21.5)	195(21.8)	201(21.3)	48(18.8)	145(23.1)	203(21.2)	108(28.9)	152(19.8)	136(19.4)	
	무토론	984(53.5)	446(49.8)	538(57.1)	135(53.1)	323(51.5)	526(55.0)	181(48.5)	409(53.4)	168(24.0)	
	중립	456(24.8)	253(28.2)	203(21.5)	71(27.9)	158(25.2)	227(23.7)	84(22.5)	204(26.6)	394(56.4)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342.1(2) p = 0.000$	$\chi^2(df) = 12.9(2) p = 0.002$	$\chi^2(df) = 3.95(4) p = 0.412$	$\chi^2(df) = 16.7(4) p = 0.002$						
19. 감상문-무감상문	감상문	462(25.1)	230(25.7)	232(24.6)	63(24.8)	158(25.2)	241(25.2)	123(32.9)	193(25.2)	146(20.9)	
	무감상문	1024(55.7)	472(52.7)	552(58.4)	135(53.1)	350(55.9)	539(56.3)	182(48.7)	415(54.2)	427(61.1)	
	중립	350(19.0)	192(21.4)	158(16.7)	56(22.0)	118(18.8)	176(18.4)	68(18.2)	157(20.5)	125(17.9)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426.2(2) p = 0.000$	$\chi^2(df) = 8.31(2) p = 0.016$	$\chi^2(df) = 1.81(4) p = 0.771$	$\chi^2(df) = 22.7(4) p = 0.000$						
20. 수업 교과서-비교과서	교과서	626(34.0)	308(34.4)	318(33.7)	88(34.6)	220(35.1)	318(33.2)	151(40.4)	277(36.2)	198(28.3)	
	비교과서	765(41.6)	367(41.0)	398(42.2)	100(39.3)	265(42.3)	400(41.8)	133(35.6)	308(40.2)	324(46.4)	
	중립	445(24.2)	219(24.4)	226(23.9)	66(25.9)	141(22.5)	238(24.8)	89(23.8)	180(23.5)	176(25.2)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84.1(2) p = 0.000$	$\chi^2(df) = 0.27(2) p = 0.87$	$\chi^2(df) = 2.06(4) p = 0.724$	$\chi^2(df) = 20.1(4) p = 0.000$						
21. 학과공부-자유	학과공부	382(20.8)	216(24.1)	166(17.6)	58(22.8)	144(23.0)	180(18.8)	90(24.1)	144(18.8)	148(21.2)	
	자유	1137(61.9)	509(56.9)	628(66.6)	144(56.6)	370(59.1)	623(65.1)	219(58.7)	488(63.7)	430(61.6)	
	중립	317(17.2)	169(18.9)	148(15.7)	52(20.4)	112(17.8)	153(16.0)	64(17.1)	133(17.3)	120(17.1)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679.0(2) p = 0.000$	$\chi^2(df) = 19.14(2) p = 0.000$	$\chi^2(df) = 9.83(4) p = 0.043$	$\chi^2(df) = 4.55(4) p = 0.337$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 알려진, 무토론, 무감상문, 비교과서, 자유 등의 요인에 의해서 독서 플로우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확률(p)이 .000로 유의수준 0.05는 물론 0.001,

0.005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학생이나 여학생, 지역별, 학교 급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업 교과서-비교과서' 항목의 경우에 초등학생은 비교과서 보다는 교과서를 통해서 독서 플로우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0.001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여학생은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무토론, 무감상문, 자유 독서'의 경우에 플로우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보다 플로우를 경험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 독서방법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때와 필요한 부분만을 골라서 읽을 때(처음 끝-골라서), 천천히 읽을 때와 빠르게 읽을 때(천천히-빠르게), 다른 사람이 읽어 줄때와 스스로 읽을 때(읽어줄 때-스스로), 다른 사람이 읽는 방법을 알려주어 읽을 때와 도움 없이 읽을 때(방법지도-비지도), 처음 보는 책과 읽은 책을 다시 읽을 때(처음 보는 책-읽은 책), 책 읽는 중에 메모·요약·밑줄을 치면서 읽을 때와 책을 읽고 나서 활동할 때(읽는 중-읽고 나서), 책상에서 바른 자세로 읽을 때와 눕기 등 자유롭게 읽을 때(정자세-자유), 혼자 있는 곳에서 읽을 때와 다른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읽을 때(혼자서-많은 사람), 책만 읽을 때와 음악 듣기처럼 다른 활동을 하면서 읽을 때(책만-음악을 들으며), 정해진 시간에 읽을 때와 읽고 싶은 때 읽을 때(정해진 시간-자유), 독서퀴즈 등 경쟁적으로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경쟁-비경쟁) 등 11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독서방법에 따른 독서 플로우 경험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독서방법에 의한 독서 플로우 차이 검증

문항	변수	전체(N) (통계량, df, 유의확률)	성별(N, %)		지역(N, %)			학교급(N, %)		
			남	여	특별	광역시	중소	초	중	고
22. 처음 끝-골라서	처음 끝	1236(67.3)	600(67.1)	636(67.5)	180(70.8)	425(67.8)	631(66.0)	263(70.5)	495(64.7)	478(68.4)
	골라서	388(21.1)	194(21.7)	194(20.5)	44(17.3)	130(20.7)	214(22.3)	69(18.4)	170(22.2)	149(21.3)
	중립	212(11.5)	100(11.1)	112(11.8)	30(11.8)	71(11.3)	111(11.6)	41(10.9)	100(13.0)	71(10.1)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979.6(2) p=0.000$	$\chi^2(df)=0.47(2) p=0.789$	$\chi^2(df)=3.28(4) p=0.511$			$\chi^2(df)=5.93(4) p=0.204$			
23. 천천히-빠르게	천천히	994(54.1)	474(53.0)	520(55.2)	151(59.4)	344(54.9)	499(52.1)	208(55.7)	396(51.7)	390(55.8)
	빠르게	506(27.5)	248(27.7)	258(27.3)	53(20.8)	167(26.6)	286(29.9)	98(26.2)	230(30.0)	178(25.5)
	중립	336(18.3)	172(19.2)	164(17.4)	50(19.6)	115(18.3)	171(17.8)	67(17.9)	139(18.1)	130(18.6)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381.2(2) p=0.000$	$\chi^2(df)=1.263(2) p=0.532$	$\chi^2(df)=8.65(4) p=0.070$			$\chi^2(df)=4.47(4) p=0.345$			
24. 읽어줄 때-스스로	읽어줄 때	273(14.8)	140(15.6)	133(14.1)	37(14.5)	102(16.2)	134(14.0)	68(18.2)	126(16.4)	79(11.3)
	스스로	1381(75.2)	647(72.3)	734(77.9)	195(76.7)	455(72.6)	731(76.4)	273(73.1)	555(72.5)	553(79.2)
	중립	182(9.9)	107(11.9)	75(7.9)	22(8.6)	69(11.0)	91(9.5)	32(8.5)	84(10.9)	66(9.4)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1456.1(2) p=0.000$	$\chi^2(df)=10.0(2) p=0.007$	$\chi^2(df)=3.47(4) p=0.481$			$\chi^2(df)=14.1(4) p=0.007$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4호)

25. 방법지도- 비지도	방법지도	273(14.8)	149(16.6)	124(13.1)	37(14.5)	103(16.4)	133(13.9)	66(17.6)	131(17.1)	76(10.8)
	비지도	1203(65.5)	565(63.1)	638(67.7)	158(62.2)	415(66.2)	630(65.8)	249(66.7)	491(64.1)	463(66.3)
	중립	360(19.6)	180(20.1)	180(19.1)	59(23.2)	108(17.2)	193(20.1)	58(15.5)	143(18.6)	159(22.7)
	합계	0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 (df) = 862.2(2) p=0.000		$\chi^2$ (df) = 5.46(2) p=0.065		$\chi^2$ (df) = 5.79(4) p=0.215		$\chi^2$ (df) = 19.4(4) p=0.001			
26. 처음 보는 책- 읽은 책	처음 보는 책	1127(61.3)	546(61.0)	581(61.6)	150(59.0)	398(63.5)	579(60.5)	254(68.0)	449(58.6)	424(60.7)
	읽은 책	427(23.2)	205(22.9)	222(23.5)	60(23.6)	129(20.6)	238(24.8)	68(18.2)	204(26.6)	155(22.2)
	중립	282(15.3)	143(15.9)	139(14.7)	44(17.3)	99(15.8)	139(14.5)	51(13.6)	112(14.6)	119(17.0)
	합계	0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 (df) = 667.2(2) p=0.000		$\chi^2$ (df) = 0.56(2) p=0.754		$\chi^2$ (df) = 4.96(4) p=0.291		$\chi^2$ (df) = 14.1(4) p=0.007			
27. 읽는 중- 읽고 나서	읽는 중	527(28.7)	247(27.6)	280(29.7)	78(30.7)	174(27.7)	275(28.7)	110(29.4)	214(27.9)	203(29.0)
	읽고 나서	584(31.8)	255(28.5)	329(34.9)	77(30.3)	205(32.7)	302(31.5)	124(33.2)	240(31.3)	220(31.5)
	중립	725(39.4)	392(43.8)	333(35.3)	99(38.9)	247(39.4)	379(39.4)	139(37.2)	311(40.6)	275(39.3)
	합계	0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 (df) = 33.9(2) p=0.000		$\chi^2$ (df) = 15.0(2) p=0.001		$\chi^2$ (df) = 0.92(4) p=0.921		$\chi^2$ (df) = 1.29(4) p=0.862			
28. 정자세-자유	정자세	499(27.1)	241(26.9)	258(27.3)	63(24.8)	184(29.3)	252(26.3)	123(32.9)	196(25.6)	180(25.7)
	자유	1070(58.2)	522(58.3)	548(58.1)	149(58.6)	365(58.3)	556(58.1)	198(53.0)	475(62.0)	397(56.8)
	중립	267(14.5)	131(14.6)	136(14.6)	42(16.5)	77(12.3)	148(15.4)	52(13.9)	94(12.2)	121(17.3)
	합계	0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 (df) = 558.1(2) p=0.000		$\chi^2$ (df) = 0.05(2) p=0.975		$\chi^2$ (df) = 5.33(4) p=0.254		$\chi^2$ (df) = 16.17(4) p=0.003			
29. 혼자서- 많은 사람	혼자서	1323(72.0)	614(68.6)	709(75.2)	191(75.1)	454(72.5)	678(70.9)	267(71.5)	528(69.0)	528(75.6)
	많은 사람	270(14.7)	140(15.6)	130(13.8)	25(9.8)	96(15.3)	149(15.5)	62(16.6)	138(18.0)	70(10.0)
	중립	243(13.2)	139(15.5)	104(11.0)	38(14.9)	75(11.9)	130(13.5)	44(11.7)	99(12.9)	100(14.3)
	합계	0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 (df) = 1237.9(2) p=0.000		$\chi^2$ (df) = 10.7(2) p=0.005		$\chi^2$ (df) = 6.73(4) p=0.151		$\chi^2$ (df) = 20.5(4) p=0.000			
30. 책만- 음악을 들으며	책만	1,004(54.6)	471(52.6)	533(56.5)	134(52.7)	347(55.4)	523(59.2)	221(59.2)	366(47.8)	417(59.7)
	음악	632(34.4)	309(34.5)	323(34.2)	89(35.0)	211(33.7)	332(34.7)	119(31.9)	299(39.0)	214(30.6)
	중립	200(10.8)	114(12.7)	86(9.1)	31(12.2)	68(10.8)	101(10.5)	33(8.8)	100(13.0)	67(9.5)
	합계	0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 (df) = 529.0(2) p=0.000.		$\chi^2$ (df) = 6.80(2) p=0.033		$\chi^2$ (df) = 0.880(4) p=0.927		$\chi^2$ (df) = 25.4(4) p=0.000			
31. 정해진 시간- 자유	정해진 시간	251(13.6)	142(15.8)	109(11.5)	38(14.9)	94(15.0)	119(12.4)	70(18.7)	120(15.6)	61(8.7)
	자유	1,387(75.5)	641(71.7)	746(79.1)	189(74.4)	465(74.2)	733(76.6)	258(69.1)	564(73.7)	565(80.9)
	중립	198(10.7)	111(12.4)	87(9.2)	27(10.6)	67(10.7)	104(10.8)	45(12.0)	81(10.5)	72(10.3)
	합계	0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 (df) = 1474.4(2) p=0.000		$\chi^2$ (df) = 13.9(2) p=0.001		$\chi^2$ (df) = 2.53(4) p=0.638		$\chi^2$ (df) = 27.5(4) p=0.000			
32. 경쟁-비경쟁	경쟁	275(14.9)	140(15.6)	135(14.3)	40(15.7)	99(15.8)	136(14.2)	75(20.1)	127(16.6)	73(10.4)
	비경쟁	1,319(71.8)	624(69.7)	695(69.7)	176(69.2)	440(70.2)	703(73.5)	244(65.4)	539(70.4)	536(76.7)
	중립	242(13.1)	130(14.5)	112(11.8)	38(14.9)	87(13.8)	117(12.2)	54(14.4)	99(12.9)	89(12.7)
	합계	0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 (df) = 1226.0(2) p=0.000		$\chi^2$ (df) = 3.99(2) p=0.135		$\chi^2$ (df) = 3.07(4) p=0.545		$\chi^2$ (df) = 22.7(4) p=0.000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방법에 따른 플로우의 경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도 없이, 처음 보는 책, 정자세가 아닌 자유롭게, 다른 사람 없이 혼자서 읽을 때, 음악이나 다른 활동 없이 책만 읽을 때, 정해진 시간 없이 자유롭게, 독서퀴즈 등 경쟁 없이 책을 읽을 때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책 읽는 중에 메모·요약·밑줄을 치면서 읽을 때와 책을 읽고 나서 활동할 때(읽는 중-읽고 나서)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다. 11개 전 항목에 걸쳐 유의확률(p)이 .000로 유의수준 0.05는 물론 0.001, 0.005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에 의한 성별, 지역, 학교 급별 차이 없이 공통성을 보였다. 다만, '읽어 줄 때-스스로' 항목의 경우 전체 통계량과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가 스스로 읽을 때 독서 플로우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혼자서-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여학생과 고등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혼자서 책을 읽을 때 독서에 몰입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바. 독서빈도 및 환경

독서 빈도 및 물리적 환경이 독서 플로우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읽을 때와 가끔씩 읽을 때(매일-가끔씩), 집에서 읽을 때와 학교에서 읽을 때(집-학교), 버스·전철 등 이동 중에 읽을 때와 고정된 장소에서 읽을 때(이동-고정) 4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독서빈도 및 환경에 의한 독서 플로우 차이 검증

문항	변수	전체(N) (통계량, df, 유의확률)	성별(N, %)		지역(N, %)			학교급(N, %)		
			남	여	특별	광역	중소	초	중	고
33. 매일-가끔씩	매일	476(25.9)	227(25.3)	249(26.4)	61(24.0)	187(29.8)	228(23.8)	138(36.9)	189(24.7)	149(21.3)
	가끔씩	1,000(54.4)	499(55.8)	501(53.1)	148(58.2)	321(51.2)	531(55.5)	166(44.5)	412(53.8)	422(60.4)
	중립	360(19.6)	168(18.7)	192(20.3)	45(17.7)	118(18.8)	197(20.6)	69(18.4)	164(21.4)	127(18.1)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379.9(2)$ p=0.000	$\chi^2(df) = 1.36(2)$ p=0.505	$\chi^2(df) = 8.887(4)$ p=0.064	$\chi^2(df) = 37.4(4)$ p=0.000					
34. 장시간-단시간	장시간	879(47.8)	402(44.9)	477(47.4)	125(49.2)	309(49.3)	445(46.5)	198(53.0)	375(49.0)	306(43.8)
	단시간	575(31.3)	296(33.1)	279(29.6)	77(30.3)	186(29.7)	312(32.6)	92(24.6)	245(32.0)	238(34.0)
	중립	382(20.8)	196(21.9)	186(19.7)	52(20.4)	131(20.9)	199(20.8)	83(22.2)	145(18.9)	154(22.0)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205.1(2)$ p=0.000	$\chi^2(df) = 5.91(2)$ p=0.052	$\chi^2(df) = 1.88(4)$ p=0.758	$\chi^2(df) = 13.9(4)$ p=0.007					
35. 집-학교	집	1,057(57.5)	481(53.8)	576(61.1)	164(64.5)	357(57.0)	536(56.0)	236(63.2)	449(58.6)	372(53.2)
	학교	428(23.3)	233(26.0)	195(20.7)	43(16.9)	151(24.1)	234(24.4)	76(20.3)	190(24.8)	162(23.2)
	중립	351(19.1)	180(20.1)	171(18.1)	47(18.5)	118(18.8)	186(19.4)	61(16.3)	126(16.4)	164(23.4)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490.1(2)$ p=0.000	$\chi^2(df) = 10.8(2)$ p=0.004	$\chi^2(df) = 7.86(4)$ p=0.096	$\chi^2(df) = 17.9(4)$ p=0.001					
36. 이동-고정	이동	286(15.5)	152(17.0)	134(14.2)	45(17.7)	105(16.7)	136(14.2)	61(16.3)	132(17.2)	93(13.3)
	고정	1189(64.7)	535(59.8)	654(69.4)	158(62.2)	389(62.1)	642(67.1)	238(63.8)	473(61.8)	478(68.4)
	중립	361(19.6)	207(23.1)	154(16.3)	51(20.0)	132(21.0)	178(18.6)	74(19.8)	160(20.9)	127(18.1)
	합계	1,836	894	942	254	626	956	373	765	698
		$\chi^2(df) = 820.5(2)$ p=0.000	$\chi^2(df) = 19.5(2)$ p=0.000	$\chi^2(df) = 5.40(4)$ p=0.248	$\chi^2(df) = 7.74(4)$ p=0.101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끔씩, 장시간에 걸쳐, 집에서, 고정된 장소에서 읽을 때 플로우를 경험하는 사례가 높게 나타났다. 4개 전 항목에 걸쳐 유의확률(p)이 .000로 유의수준 0.05는 물론 0.001, 0.005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에 의한 성별, 지역, 학교

급별 차이 없이 공통성을 보였다. 다만, ‘매일-가끔씩’, ‘장시간-단시간’ 항목의 경우 전체 성향과 차이는 없었으나 고등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끔씩 읽을 때와 장시간에 걸쳐 읽을 때 플로우를 경험한다는 비중이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집에서, 고정된 장소에서 책을 읽을 때 플로우를 많이 경험한다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0.05와 0.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2. 요인분석

연구자가 설정한 독서 플로우의 요인 즉, 36개 설문 문항이 독서자료(외적 형식), 독서자료(내용형식), 독서 목적 및 의도성, 자율성과 타율성, 독서방법, 독서빈도 및 환경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SPSS18 버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의 검사는 이미 교차분석에서 크론바 알파계수가 0.801로 나타나 신뢰도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요인분석은 공통성(communality) 값을 이용하여 설문 문항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 공통성 추정치 0.5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요인분석의 실행은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 방식을 이용하였다.

1차 요인분석에 의거 공통성을 추출한 결과 0.5이하인 요소는 종이책-전자책, 소설-비소설, 사실-상상, 고전-신간, 내 생각-다른 내용, 추천-자신, 알려진-알려지지 않은, 수업 교과서-수업 비교과서, 학과 공부-자유, 처음 끝-골라서, 천천히-빠르게, 읽는 중-읽고 나서, 정자세-자유, 책만-음악을 들으며, 장시간-단시간, 이동-고정 등 16개로 나타났다. 공통성이 0.5 이하인 16개 요소를 제외한 20개 요소간의 상관관계 행렬에 의한 상관관계 값들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적이며, 요인분석을 위한 적절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표 11>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79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6843.032
	자유도	190
	유의확률	.000

<표 12>는 요인분석에 의거 산출한 설명된 총 분산이며, <표 13>은 요인분석에 따른 성분행렬을 보여주고 있다. 20개 변수로 부터 처음에 20개 요인이 추출된 경우의 각 요인에 대한 고유값(eigenvalue)과 각 요인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추출한 요인의 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아이겐값 1을 사용하였는데, 요인 6의 고유값이 .966이므로 5개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표 12〉 설명된 총 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3.338	16.692	16.692	3.338	16.692	16.692	3.190	15.952	15.952
2	2.580	12.900	29.592	2.580	12.900	29.592	2.217	11.086	27.038
3	2.016	10.082	39.674	2.016	10.082	39.674	1.697	8.486	35.524
4	1.113	5.563	45.237	1.113	5.563	45.237	1.577	7.886	43.410
5	1.042	5.209	50.446	1.042	5.209	50.446	1.407	7.036	50.446
6	.966	4.828	55.274						
7	.929	4.646	59.920						
8	.908	4.538	64.458						
9	.816	4.080	68.537						
10	.759	3.796	72.334						
11	.719	3.596	75.930						
12	.649	3.244	79.174						
13	.630	3.151	82.325						
14	.608	3.039	85.365						
15	.588	2.938	88.303						
16	.517	2.585	90.888						
17	.483	2.414	93.303						
18	.473	2.364	95.667						
19	.438	2.192	97.859						
20	.428	2.141	100.000						

〈표 13〉 성분행렬

설문 문항	요인	요인				
		자율성과 타율성	독서자료	독서환경	독서목적 및 의도성	독서방법
32. 경쟁-비경쟁		.751	.031	-.081	-.028	-.021
31. 정해진 시간-자유		.735	.077	-.059	-.005	-.018
25. 방법지도-비지도		.700	-.086	.047	.124	-.156
18. 토론-무토론		.660	-.056	-.076	-.010	.174
24. 읽어줄 때-스스로		.642	-.145	.078	.196	-.230
19. 감상문-무감상문		.640	-.144	-.066	.012	.200
33. 매일-가끔씩		.424	.293	.311	-.335	.103
3. 두꺼운-얇은		.010	.769	.116	.097	.129
5. 전체-부분		-.056	.633	.226	.149	.171
2. 그림-글		.240	-.618	.236	.261	.107
10. 쉬운 책-어려운 책		.140	-.556	.331	.399	.077
1. 도서-신문		.044	.531	.272	.052	.128
35. 집-학교		-.004	.128	.742	-.079	.012
29. 혼자서-많은 사람		-.124	.057	.636	.076	.261
15. 여가-정보		-.106	.075	.513	.461	-.002
14. 무계획-계획		-.067	.157	-.034	.732	-.027
6. 단권-시리즈		.152	-.143	.100	.481	.111
9. 설명-논설		.145	.055	-.066	.379	.329
26. 처음 보는 책-읽은 책		-.041	.039	.166	.001	.701
12. 새로운-아는		.005	.182	.087	.115	.699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독서 플로우의 요인을 5개 즉, 자율성과 타율성, 독서자료, 독서환경, 독서목적 및 의도성, 독서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당초 설문지를 구성할 때 포함되었던 독서자료(내용형식) 요인을 찾을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요인 즉, '설명-논설', '쉬운 책-어려운 책', '새로운-아는' 항목들이 다른 요인에 흩어져서 적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에 의한 성분행렬에 각각 자율성과 타율성, 독서자료, 독서환경, 독서목적 및 의도성, 독서방법이라는 요인 명칭을 부여하였으나 요인 간에 항목이 다소 섞여있고, 당초 설문을 구성할 당시의 요인과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독서 플로우에 의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각 측정 변수와 잠재변수간의 관계를 사전에 여러 모형으로 설정하고, 각 모형의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확인적(confirmatory) 요인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이나 AMOS와 같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 V. 결론 및 제언

외부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행동 그 자체가 즐거워서 특정 활동에 깊이 몰두하여 시·공간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리는 최적의 경험 상태를 플로우라 한다. 이 플로우 현상은 등반, 낚시, 무용, 스포츠, 영화 등 취미나 예술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폭주와 같은 다소 위험하거나 불량해 보이는 활동에서도 체험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 집단이나 연령, 문화권에 관계없이 가장 폭넓고 광범위하게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행동으로 독서를 들고 있다. 초·중등학생들의 독서 플로우에 관한 성향이나 패턴을 파악하고, 독서 플로우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수 있다면 독서교육은 물론 독서를 통한 교과 활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학생의 독서 플로우 성향과 요인 분석을 위해서 40개 학교 1,836 명으로부터 수집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카이자승, 교차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독서자료(외적 형식), 독서자료(내용 형식), 독서 목적 및 의도성, 자율성과 타율성, 독서방법, 독서 빈도 및 환경 등 6개 영역에 걸쳐 3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학생들은 남녀, 지역, 학급 급별에 관계없이 독서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독서 플로우를 경험하고 있다. 독서자료(외적 형식)에 의한 독서 플로우의 경향은 신문이나 다른 자료보다는 도서, 글로만 된 책보다는 그림이 많은 책, 두꺼운 책 보다는 얇은 책, 전자책 보다는 종이책, 부분적으로 골라서 읽기보다는 전체를 통람할 때, 시리즈보다는 단권을 읽을 때 독서 플로우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자료(내용 형식)에 의한 독서 플로우의 경향은 비소설보다는 소설,

사실적인 내용을 다룬 책보다는 상상을 다룬 책, 어려운 내용의 책보다는 쉬운 책, 고전보다는 신간,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새로운 내용의 책, 내 생각과 다른 내용의 책보다는 내 생각과 같은 책을 읽을 때 독서 플로우 현상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 목적 및 의도성에 의한 독서 플로우의 경향은 계획적으로 읽기보다는 무계획적으로 읽을 때, 정보 혹은 생산적으로 책을 읽을 때보다는 여가를 위해서 읽을 때, 다른 사람이 추천하기 보다는 자신이 고른 책, 알려지지 않은 책보다는 널리 알려진 책, 토론·감상문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읽기 보다는 자유롭게 읽을 때, 교과서 보다는 교과서가 아닌 다른 자료를 읽을 때 독서 플로우의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독서방법에 의한 독서 플로우의 경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천천히 읽을 때,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지도나 도움 없이 읽을 때, 처음 보는 책, 음악 등 다른 활동 없이 읽을 때, 퀴즈 등 경쟁 없이 읽을 때 독서 플로우의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독서 빈도 및 환경에 의한 플로우의 경향을 보면 매일 보다는 가끔씩, 장시간에 걸쳐, 학교보다는 집에서, 버스 전철 등 이동할 때보다는 고정된 장소에서 읽을 때 독서 플로우의 경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36개 설문 항목 전체에 걸쳐 유의확률(p)이 .000로 유의수준 0.05는 물론 0.001, 0.005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설명-논설'과 '책 읽은 중에 메모·요약·밑줄을 치면서 읽을 때와 책을 읽고 나서 활동할 때(읽는 중-읽고 나서)'의 항목은 중립적 태도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설명문과 논설문에 관계없이 독서 플로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초·중등 학생들이 설명문과 논설문에 대한 구분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연구자가 설정한 독서 플로우의 요인 즉, 36개 설문 문항이 독서자료(외적 형식), 독서자료(내용형식), 독서 목적 및 의도성, 자율성과 타율성, 독서방법, 독서빈도 및 환경 요인으로 묶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율성과 타율성, 독서자료, 독서환경, 독서목적 및 의도성, 독서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다만, 당초 설문지를 구성할 때 포함되었던 독서자료(내용형식) 요인을 찾을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요인 즉, '설명-논설', '쉬운 책-어려운 책', '새로운-아는' 항목들이 다른 요인에 흩어져서 적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에 의한 성분행렬에 각각 자율성과 타율성, 독서자료, 독서환경, 독서목적 및 의도성, 독서방법이라는 요인 명칭을 부여하였으나 요인 간에 항목이 다소 섞여있고, 당초 설문을 구성할 당시의 요인과 거리가 있었다.

넷째, 향후에 독서 플로우에 의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각 측정 변수와 잠재변수간의 관계를 사전에 여러 모형으로 설정하고, 각 모형의 구조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 현장에서는 개개 학생들의 특성과 개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MBTI와 같은 학습 스타일이나 성격 검사를 널리 적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독서 동기나 태도, 선호하는 독서자료 및 독서 방법 등을 사전에 검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독서 플로우 현상에 관한 이론을 보다 정교화하고, 독서 플로우의 요인에 관한 구조적 모형을 설정한다면 독서 플로우 측정을 위한 검사지 개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